

**NOW**

**일본**

**산업리포트**

**일본의 대(對)아프리카 경제관계와  
진출전략 및 전망**

## 일본의 대(對)아프리카 경제관계와 진출전략 및 전망

### □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아프리카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중간 계층의 확대

- 2022년 발표된 UN의 세계 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11월 80억 명을 돌파한 세계인구 중에서 아프리카 지역 54개국의 총인구는 약 14억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중국, 인도와 비슷한 규모임.
  - 2030년 아프리카 인구는 약 16억 9천만 명으로 세계인구 5명 중 1명, 2050년에는 약 24억 6천만 명으로 세계인구의 4명 중 1명이 아프리카 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, 그중에서도 나이지리아, 콩고민주공화국, 에티오피아, 탄자니아의 인구성장이 두드러짐.
- 2023년 5월에 발표된 아프리카개발은행 그룹(AfDB: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)의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에 ▲1.7%를 기록한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4.8%, 2022년 3.8%에서 2023년 4.0%, 2024년 4.3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  - 2023년 아프리카의 지역별 경제성장률을 보면, 남부 1.6%, 서부 3.9%에 비해, 북부 4.6%, 중부 4.9%, 동부 5.1% 등 상대적으로 중동부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.
- 향후 아프리카의 소득 계층별 인구 비중에서 중간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 - 빈곤 계층(1일 소득 2달러 미만) 비중은 2020년 59.96%에서 2050년 52.02%로 감소. 중간 계층(1일 소득 2~20달러) 비중은 2020년 33.44%에서 2050년에는 39.91%로 증가. 상위 계층(1일 소득 20달러 초과) 비중은 2020년 6.60%에서 2050년에는 8.07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.

### □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협정(AfCFTA: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)의 출범으로 WTO 다음으로 많은 국가가 참여한 다자간 자유 무역지대의 형성

- 2018년 3월 아프리카 연합(AU: African Union) 가맹국 중 44개국이 AfCFTA 설립 협정에 서명하고 2019년 5월에 발효, 정식 운용은 2021년 1월부터 시작됨.
  - 2023년 3월 시점에 55개 AU 가맹국 중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국이 서명하였고 46개국이 비준서 기탁을 완료한 상태
- AfCFTA 협상은 현재진행형인데 1단계 협상(Phase I), 2단계 협상(Phase II), 3단계 협상(Phase III)의 총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됨.
  - 1단계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 의정서, 서비스 무역 의정서, 분쟁해결 기준 및 절차 의정서와 그 부속서 내용에 대한 협의, 2단계 협상에서는 지적재산권 의정서, 경쟁정책 의정서, 투자 의정서에 대한 협의, 3단계 협상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의정서 등이 다루어질 예정임.
  - 2023년 2월 개최된 제36차 AU 정상회의에서 2단계 협상의 주된 내용인 지적재산권 의정서, 경쟁정책 의정서, 투자 의정서 초안이 승인되면서 현재 3단계 협상만이 남은 상황

### 일본의 대(對)아프리카 전략의 중심축인 아프리카개발회의(TICAD: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)

- 일본 정부의 주도로 1993년 제1차 회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8차례 실시된 TICAD는 아프리카의 개발과 지원을 위한 국제 포럼의 성격을 가짐.
  - 아프리카 각국뿐 아니라 국제개발 관련 국제기관, 아시아 각국, 민간 기업, 시민사회단체도 참가하는데, 2013년 제5차 회의 이후로는 3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음 (<표1>).
- 2022년 8월 튀니지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에 아프리카에서는 약 20명의 정부수반급이 참가하였는데, 온라인으로 참가한 기시다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“청년층 인구가 많은 아프리카는 앞으로 다이내믹한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며, 일본은 아프리카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” 라고 연설함.
  - 일본은 인재에 대한 투자와 질 높은 성장을 축으로 하는 아프리카개발을 위해 3년간 민관 총액 30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여 ①그린투자, ②투자촉진, ③개발금융, ④보건·공중위생, ⑤인재육성, ⑥지역 안정화, ⑦식료안전보장 부문에 노력할 것을 약속함.

- 제8차 회의를 전후하여 참가한 일본 기업들과 단체들은 아프리카의 파트너 기업 혹은 단체들과 총 92건의 MOU를 체결했는데, 이토추상사, 마루베니, 미쓰비시상사, 도요타통상 등 상사가 많은 점이 특징임.

<표1> 역내 TICAD 주요 내용과 일본의 對아프리카 지원 표명액

제1차 TICAD ( 1993.10.도쿄 )		제2차 TICAD ( 1998.10.도쿄 )	
주체	·일본,UN,GCA(아프리카개발 국제NGO)	·일본,UN,UNDP,GCA	
포인트	·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對아프리카지원의 필요성 · 아프리카의 자조 노력의 중요성 · 아시아 경험을 바탕으로 남남(南南)협력추진	· 기본원칙으로 오너쉽과 파트너쉽 명기 · 의제로 [사회개발], [경제개발], [개발 기반]으로 나누어 각각의 수치목표 설정	
일본의 지원 표명액	경제개혁과 수도공급 확충등에 3년간 9억~10억달러 무상자금협력	기초생활분야에서 5년간 7억5천만 달러 무상자금협력	
제3차 TICAD ( 2003.9 ~ 10.도쿄 )		제4차 TICAD ( 2008.5.요코하마 )	
주체	·일본,UN,UNDP,GCA,IBRD	·일본,UN,UNDP,IBRD	
포인트	· 아프리카개발 신평트너쉽(NEPAD)지원 중시 · 인간의 안전보장 중시 · 일본의 대 아프리카 지원 3대 방침(인간중심개발,경제 성장을 통한 빈곤삭감, 평화정착) 표명	· 대규모 광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개발에 역점 · 지구온난화에 의한 환경문제 관심 고조 · 처음으로 UN안보리 개혁 언급	
일본의 지원 표명액	5년간 10억달러 무상자금협력, 30억달러규모 기존 채권 포기	5년간 對아프리카ODA 2배 증가, 인프라에 대해 최대 40억달러 엔차관 공여	
제5차 TICAD ( 2013.6.요코하마 )		제6차 TICAD ( 2016.8.케냐 나이로비 )	
주체	·일본,UN,AUC,UNDP,IBRD	·일본,UN,AUC,UNDP,IBRD	
포인트	· 민간주도 성장 촉진을 통한 개발의 경제 기반 강화 · 민간과의 대화 세션 개최와 UHC 추진 표명 · 아프리카 청년층 산업인재육성이니시어티브(ABE이니시어티브) 발표	·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개최 · [일본-아프리카 민관 경제포럼] 설립 표명 · 기조연설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이니시어티브 발표(아베수상)	
일본의 지원 표명액	5년간 민관 최대 320억달러(ODA 140억달러 포함)	민관 총 300억달러 투자	
제7차 TICAD ( 2019.8.요코하마 )		제8차 TICAD ( 2022.8.튀니지 튀니스 )	
주체	·일본,UN,AUC,UNDP,IBRD	·일본,UN,AUC,UNDP,IBRD	
포인트	· 비즈니스의 주류화 · [아프리카건강구상] 설립 표명 · [아프리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어프로치(NASPA)] 제창 · [2국간 비즈니스환경 개선위원회] 발족	· 건전한 개발금융의 중요성 · [아프리카 녹색 성장 이니시어티브] 설립 표명 · 산업고도화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한 [미래 산업인재 이니시어티브] 설립 표명	
일본의 지원 표명액	200억 달러 이상의 민간투자 확대	3년간 민관 총 300억달러 자금 투입	

출처: 金子七絵 「TICADプロセスと日本のアフリカ開発協力」 를 토대로 작성

## □ 일본-아프리카 기업의 협력 및 일본 기업의 아프리카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일본-아프리카 민관 경제포럼(JAfEF: Japan Africa Public-Private Economic Forum)

- 2016년 제6차 TICAD에서 당시 아베 총리가 JAfEF 창설을 표명한 후, 일본 정부 주도로 아프리카 각국 및 JETRO가 공동 개최
  - 제1차 포럼은 남아공에서, 제2차 포럼은 2021년 12월에 온라인 분과 회의를 거쳐 2022년 5월에 케냐에서 개최
  - 2022년 5월 제2차 포럼에는 아프리카 각국에서 8명의 각료급 인사 등을 포함해 16개국에서 총 250명이 참가
  - 제2차 포럼에서 일본과 아프리카의 경제 관계 강화를 위한 경제산업성 시책으로서 ①일본 기업과 아프리카 기업의 제휴를 통한 사회과제 해결형 비즈니스 프로젝트 조성을 지원하는 J-Partnership, ②일본 기업과 아프리카 스타트업 기업의 협업을 촉진하는 플랫폼 J-Bridge의 아프리카 거점 설치, ③산업인재 육성 강화, ④아프리카 금융기관과의 제휴 강화 등이 포함됨.

## □ 남아공, 케냐, 이집트에 편중된 일본의 對아프리카 경제 관계

- 일본의 對아프리카 무역액에서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 국가와 남아공, 케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(<표2>)
  - 품목별로는 자동차 등 운송기기가 對아프리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, 수입에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광물성 연료와 철광석이 많고, 어패류나 커피와 같은 식료품이 주된 품목임.
- 아프리카에 진출한 일본 기업 수의 경우, 2022년을 기준으로 남아공과 케냐에 100개 사 이상의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, 모로코, 가나,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기업도 50개 사 이상임.
  - 2050년에 세계인구 상위 10개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나이지리아, 에티오피아, 콩고의 경우, 향후 시장 확대를 기대한 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<표2> 아프리카 주요국과 일본의 주요 경제관계 현황

모로코

년	일본 수출(A)	일본 수입(B)	무역수지(A-B)	일본기업 투자액
2018	195	314	▼119	13억엔
2019	199	269	▼70	22억엔
2020	224	299	▼75	▼2억엔
2021	227	357	▼130	▼14억엔
2022	237	464	▼227	▼6억엔

\*주요 수출품(2022): 운송기기(43.5%), 전기기기(20.2%), 일반기계(14.3%)  
 \*주요 수입품(2022): 어패류(34.7%), 화학제품(33.3%), 의류·동부속품(10.6%)  
 \*진출 일본기업수(거점)(2021년, 외무성 통계): 67, 재류일본인(2022): 352명  
 \*일본과의 주요협정: 일본-모로코 투자협정·조세조약(2022)

가나

년	일본 수출(A)	일본 수입(B)	무역수지(A-B)	일본기업 투자액
2018	152	125	27	2억엔
2019	111	122	▼11	0억엔
2020	138	130	8	3억엔
2021	182	133	49	1억엔
2022	109	150	▼41	9억엔

\*주요 수출품(2022): 운송기기(45.2%), 고무제품(16.6%), 일반기계(15.2%)  
 \*주요 수입품(2022): 식료품(74.9%), 비철금속(16.1%)  
 \*진출 일본기업수(거점)(2022년, 외무성 통계): 57, 재류일본인: 272명  
 \*일본과의 주요협정: 경제기술협력협정(1962)

이집트

년	일본 수출(A)	일본 수입(B)	무역수지(A-B)	일본기업 투자액
2018	994	270	724	4억엔
2019	911	140	771	34억엔
2020	970	310	660	11억엔
2021	1,093	319	774	15억엔
2022	789	370	419	24억엔

\*주요 수출품(2022): 운송기기(30.1%), 일반기계(33.8%), 원료별제품(8.9%)  
 \*주요 수입품(2022): 광물성연료(80.0%), 식료품(8.2%)  
 \*진출 일본기업수(거점)(2021년, 외무성통계): 51, 재류일본인(2022): 764명  
 (주)무역(백만달러);재무성 통관기준, 투자액(억엔);일본은행 Net flow기준

나이지리아

년	일본 수출(A)	일본 수입(B)	무역수지(A-B)	일본기업 투자액
2018	328	922	▼594	6억엔
2019	392	510	▼118	4억엔
2020	285	690	▼405	5억엔
2021	287	759	▼472	7억엔
2022	249	1,250	▼1,001	45억엔

\*주요 수출품(2022): 운송기기(35.1%), 원료품(16.7%), 일반기계(16.0%)  
 \*주요 수입품(2022): 액화천연가스(72.6%), 비철금속(14.7%), 원료품(12.5%)  
 \*진출 일본기업수(거점)(2022년, 외무성통계): 51, 재류일본인:156명  
 (주)무역(백만달러);재무성 통관기준, 투자액(억엔);일본은행 Net flow기준

에티오피아

년	일본 수출(A)	일본 수입(B)	무역수지(A-B)
2018	47	105	▼58
2019	85	137	▼52
2020	84	107	▼23
2021	71	89	▼18
2022	65	161	▼96

\*주요 수출품(2022): 운송기기(60.9%), 일반기계(17.5%), 철강(4.3%)  
 \*주요 수입품(2022): 식료품(커피, 깨 등)(87.7%), 원료품(11.4%)  
 \*진출 일본기업수(거점)(2022년, 외무성통계): 13, 재류일본인: 189명

모잠비크

년	일본 수출(A)	일본 수입(B)	무역수지(A-B)
2018	123	176	▼53
2019	184	213	▼29
2020	140	57	83
2021	129	143	▼14
2022	123	126	▼3

\*주요 수출품(2022): 자동차(38.4%),철강(11.9%)  
 \*주요 수입품(2022): 석탄(50.0%), 비철금속광(21.7%)  
 \*진출 일본기업수(거점)(2021년, 외무성통계): 27, 재류일본인(2022): 141명

케냐

년	일본 수출(A)	일본 수입(B)	무역수지(A-B)	일본기업 투자액
2018	898	69	829	9억엔
2019	854	72	782	12억엔
2020	719	68	651	9억엔
2021	1,027	77	950	9억엔
2022	971	68	903	9억엔

\*주요 수출품(2022): 자동차(57.2%), 철강(29.1%), 일반기계(2.0%)  
 \*주요 수입품(2022): 원료품(56.8%), 식료품(커피, 차 등)(36.5%)  
 \*진출 일본기업수(거점)(2021년, 외무성통계): 103, 재류일본인(2022): 681명  
 (주)무역(백만달러);재무성 통관기준, 투자액(억엔);일본은행 Net flow기준

남아프리카공화국

년	일본 수출(A)	일본 수입(B)	무역수지(A-B)	일본기업 투자액
2018	2,519	5,141	▼2,622	1,613억엔
2019	2,414	5,130	▼2,716	▼1,425억엔
2020	1,667	5,759	▼4,092	▼4,837억엔
2021	2,363	10,099	▼7,736	452억엔
2022	2,375	10,098	▼7,723	895억엔

\*주요 수출품(2022): 운송기기(50.9%), 일반기계(17.7%), 원료별제품(12.3%)  
 \*주요 수입품(2022): 비철금속(71.3%), 철광석(4.8%), 자동차(5.8%)  
 \*진출 일본기업수(거점)(2022년, 외무성통계):268, 재류일본인:1,033명  
 (주)무역(백만달러);재무성 통관기준, 투자액(억엔);일본은행 Net flow기준

출처: JETRO 자료를 중심으로 필자 작성

## □ 아프리카 시장에서 중국의 독주와 일본의 진출전략

- 新아프리카 쟁탈전 시대에 중국의 독주가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에서, 2000년에 시작된 중국·아프리카협력포럼(FOCAC: Forum on China-Africa Cooperation)은 지금까지 총 8차례 회의를 개최함.
  - 아프리카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에서 중국은 2000년 이후 프랑스, 미국, 독일을 넘어서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음.
  - 2020년 기준 아프리카의 對중국 수입액은 1,100억 달러인데, 프랑스, 미국, 독일로부터의 수입액은 각각 3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  - 중국은 나이지리아, 남아공, 이집트에 전기기구, 기계류, 운송기구를 수출하고, 남아공, 앙골라, 콩고에서 광물성 연료, 철광석, 귀금속류를 수입하는 구조
  - 아프리카 국가들은 對중국 무역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시장 개방을 더욱 요구하고 있고 중국도 아프리카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확대하고 있어서, 향후 중국-아프리카의 무역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- 일본의 對아프리카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자동차 등 운송기기이며, 일반기계와 철강 수출액은 최근 정체됨.
  - 의약품이나 화학제품은 독일, 프랑스, 중국 등에 비해 일본의 수출액이 상대적으로 작아서, 향후 對아프리카 무역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임.
- 일본의 對아프리카 무역의 특징은 남아공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
  - 향후 빠른 경제성장률이 기대되는 케냐, 탄자니아, 우간다 등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시장 확대를 도모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

## □ 일본 기업의 對아프리카 진출 현황과 과제

-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231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
  - ①약 80%의 기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는데, 특히 물류비용과 원자재가격 상승 및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흑자기업은 전체의 48.9%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.
  - ②향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대답한 기업이 54.5%인데, 특히 나이지리아, 가나, 에티오피아에 진출한 기업들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할 만함.

- ③투자환경 측면에서는 시장의 성장성에서 매력을 느끼는 기업이 많은 반면, 정치·사회 정세의 불안정, 법 제도의 미비, 환율변동 같은 리스크 요인 등은 투자 매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임.
- 동(同) 조사에 응답한 일본 기업의 진출국을 보면, 남아공 59개 사, 케냐 50개 사, 이집트 33개 사 모로코 31개 사, 나이지리아 26개 사, 가나 14개 사, 모잠비크 10개 사의 순임.
  - 2020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영업이익 흑자기업의 비율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(36.5%)이었으나, 2021년에 49.2%, 2022년에 48.9%로 증가함.
  - 2022년 기준 제조업의 57.4%가 흑자기업인데,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비제조업의 흑자기업 비율은 이보다 낮은 45.8%임.
  - 2022년 기준 흑자기업 비율이 50%를 상회하는 국가는 에티오피아(62.5%), 남아공(60.0%), 케냐(52.6%), 모로코(52.4%), 이집트(51.7%) 순임.
  -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년보다 9.6%포인트 증가한 48.4%를 차지해 수익성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.
    - 2023년에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는, 수출량 증가에 의한 매출 증가, 코로나 회복, 판로 확대에 의한 매출 증가, 현지의 구매력증가에 의한 매출 증가 등을 꼽은 기업이 많음.
    - 반면 2023년에 영업이익 악화가 예상되는 이유에 대해서는, 물류비용의 상승, 원자재 및 부품 조달 비용의 상승, 환율변동을 꼽은 기업이 많음.
  - 전체 기업의 54.6%가 아프리카에서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도 조사보다 5.9%포인트 상승한 수치임.
    - 국가별로는 나이지리아, 가나, 에티오피아를 꼽은 기업이 많아서, 이들 국가에서의 향후 사업 확대가 예상됨.
    - 사업 확대의 이유로는 높은 성장성 및 잠재력, 판로 확대·수출 증가·현지 시장의 구매력증가에 의한 매출 증가가 지적됨.

-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인식에서는 향후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음.
- 5년 전에 비해 현재 아프리카 시장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50.9%이며, 지금보다 5년 후 아프리카 시장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67.7%에 이룸.
- 아프리카에 기업 거점을 설치한 이유로는 시장의 잠재성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음(81.3%)<표3>.

<표3> 아프리카에 기업 거점 설치의 이유

(복수응답)	아프리카 전체 (N=230)	남아공 (N=46)	케냐 (N=38)	이집트 (N=29)	모로코 (N=22)	나이지리아 (N=19)	가나 (N=12)
시장규모	38.7%	34.8%	47.4%	48.3%	27.3%	42.1%	33.3%
시장의 잠재성	81.3%	78.3%	86.8%	72.4%	77.3%	100.0%	91.7%
현지 정부의 요청	3.5%	0.0%	7.9%	0.0%	4.5%	0.0%	0.0%
천연자원	11.7%	19.6%	5.3%	6.9%	0.0%	5.3%	16.7%
일본 정부의 요청	8.3%	2.2%	15.8%	3.4%	4.5%	5.3%	8.3%
수익성	15.7%	17.4%	15.8%	13.8%	13.6%	10.5%	16.7%
거래처의 요청	12.6%	23.9%	7.9%	10.3%	18.2%	10.5%	8.3%
기술탐색	3.0%	0.0%	0.0%	3.4%	4.5%	10.5%	0.0%
제조거점으로서의 우위성	10.4%	10.9%	5.3%	17.2%	31.8%	10.5%	0.0%
기타	7.8%	4.3%	7.9%	13.8%	0.0%	0.0%	16.7%

출처: JETRO(2022) 「2022年度海外進出日系企業実態調査／アフリカ編」를 기초로 필자 작성

- 아프리카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으로는 시장 규모와 성장성, 상대적으로 낮은 언어 장벽(영어 사용 아프리카 국가들)이 거론됨.
  - 전체 67.9%(복수응답)가 진출국의 시장 규모와 성장성을 매력 요인으로 꼽았는데, 그 중에서 나이지리아, 이집트, 가나, 케냐가 높은 평가를 받음.
  - 상대적으로 낮은 언어장벽은 남아공, 케냐, 가나가 높은 평가를 받음.
- 아프리카 투자환경의 과제로는 미비한 규제와 법제도 및 운용, 재정·금융·환율 문제, 불안정한 정치·사회 정세, 불안정한 인프라가 거론됨.

· 미비한 규제와 법제도 및 운용은 행정 수속의 번잡성, 재정·금융·환율 문제는 불안정한 환율변동, 불안정한 정치·사회 정세는 치안 불안과 정치적 리스크, 불안정한 인프라는 전력 부족이 각각 지적됨.

- 아프리카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는 유럽 기업(25.9%)이 가장 많고, 중국 기업(19.3%), 일본 기업(17.5%), 현지 기업(12.3%)의 순임.

## □ 일본 기업이 주목하는 아프리카 국가 및 유망 비즈니스 분야

- 아프리카에서 일본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국가로 케냐(42.8%), 남아공(30.4%), 나이지리아(28.9%)가 상위를 차지하며, 최근 가나가 급상승<표4>
  - 2018년부터 케냐, 남아공, 나이지리아는 주목 국가 1~3위를 차지하고 있음.
  - 가나에 주목하고 있다는 기업들이 2018년에는 16.3%, 2020년에는 19.5%, 2022년에는 23.2%로 늘어나면서 전체 국가 중 4위로 올라섬.
  - 케냐의 특징은 스타트업 기업과 인프라 수요가 많고,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허브이며,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·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. 현지 정부의 수출 장려책과 일본 ODA투자 사업이 활발함.
  - 남아공의 특징은 아프리카의 경제·제조·수출의 거점이며, 자동차산업과 관련 시장이 크며, 광물 자원이 풍부함. 향후 암모니아나 수소 등 탈(脫)탄소·그린 비즈니스의 발전 가능성이 높음.
  - 나이지리아의 특징은 거대한 청년층 중심의 인구와 시장임. 자원·에너지, 농업, 농기구, 자동차부품,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이 기대됨.
  - 가나의 특징은 비교적 안정된 정치 정세, 경제 규모의 확대, 에너지 개발, 자동차 산업, 카카오 제품, 서부 아프리카 거점으로서의 후보지 등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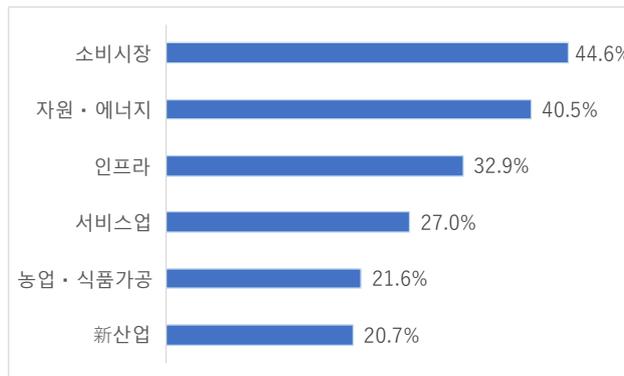
<표4> 향후 아프리카에서 주목하는 국가 (복수응답)

2018년 주목 국가	(N=270) %	2020년 주목 국가	(N=282) %	2022년 주목 국가	(N=194) %
케냐	39.6%	케냐	35.1%	케냐	42.8%
나이지리아	34.4%	남아공	33.0%	남아공	30.4%
남아공	32.5%	나이지리아	29.4%	나이지리아	28.9%
모잠비크	23.7%	에티오피아	21.3%	가나	23.2%
에티오피아	22.2%	가나	19.5%	탄자니아	22.2%
탄자니아	19.3%	모로코	19.1%	에티오피아	20.6%
이집트	16.7%	모잠비크	17.0%	모로코	18.6%
모로코	16.3%	코트디부아르	16.3%	코트디부아르	18.6%
가나	16.3%	이집트	16.0%	이집트	17.0%
짐바브웨	15.9%	탄자니아	15.6%	모잠비크	15.5%

출처: <표3>과 동일

- 유망 비즈니스 분야로 소비시장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고(44.6%), 그다음은 자원·에너지, 인프라, 서비스업의 순임.

<표5> 아프리카 지역 유망 비즈니스 분야 (복수응답)



[소비시장] 세부분야		[자원·에너지] 세부분야		[인프라] 세부분야		[서비스업] 세부분야	
식품	58.9%	재생에너지(태양광)	56.5%	전력	64.1%	의료·보건	47.3%
운송기기 (자동차, 이륜차)	51.1%	수소	40.1%	도로	40.6%	물류·해운	38.2%
생활용품	41.1%	연료암모니아	37.6%	수도	39.1%	정보서비스	30.9%
유아·어린이	18.9%	천연가스	36.5%	항만	37.5%	교육	30.9%
여성	17.8%	재생에너지(풍력)	32.9%	도시개발	32.8%	금융·보험	30.9%

출처: <표3>과 동일

- 유망 비즈니스 분야로 소비시장을 꼽은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인구 증가를 예상한 식품, 운송기구, 생활용품, 유아·어린이, 여성 대상 분야를 꼽음.
- 인프라를 꼽은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전력이 가장 많고(64.1%), 그다음 도로, 수도, 항만, 도시개발을 꼽음.
- 자원·에너지를 꼽은 기업들은 태양광이 가장 많고(56.5%), 그다음 수소, 암모니아, 천연가스, 풍력을 꼽음.
- 서비스업을 꼽은 기업들은 의료·보건의 가장 많은데(47.3%), 이는 비만 인구가 높은 점과 위생 문제로 인한 질병 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.
- 일식(日食) 관련 분야: 일본에서 아프리카로 수출되는 식품 중 약 90%가 어패류임. 아프리카의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른 왕성한 구매력에 의해 일식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관련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함.
- 그린 에너지 분야: 아프리카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있어서 토지 및 기후 조건이 유리함. 아프리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은 수력이 대부분이지만 2010년경부터 풍력, 태양력, 태양열, 지열에 의한 발전이 증가하고 있음.
- 의료·보건 분야: 경제성장으로 서구식 식생활이 보급되면서 당뇨병과 같은 질병이 급증하고 있음. 이집트, 모로코, 남아공에서는 비만(BMI 25이상) 인구 비중이 50%를 넘고, 향후 경제성장과 함께 중산층이 증가할 경우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됨.

---

**<참고문헌>**

- 直江敦彦「日本とアフリカのビジネスの現状」JETRO, 2021.8
- 金子七絵「TICADプロセスと日本のアフリカ開発協力」参議院, 2022.11
- JETRO「2022年度海外進出日系企業実態調査/アフリカ編」JETRO, 2022.12
- 佐藤丈治「人口増加にみるアフリカ市場の可能性と課題」JETRO, 2022.12  
(<https://www.jetro.go.jp/biz/areareports/2022/b17b51af306ca379.html>)
- 佐藤丈治「新アフリカ争奪戦と日本のアフリカビジネスの可能性」JETRO, 2023.3  
(<https://www.jetro.go.jp/biz/areareports/2023/b8710e51d366751b.html>)
- 김경하「자주적 경제 통합을 향한 아프리카의 여정: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(AfCFTA) 추진 배경과 과제」서울대아시아연구소. 『Asian Regional Review DiverseAsia』 Vol.6 No.2. 2023.
- The Economist. “The new scramble for Africa” , 2019.3.7
- AfDB Group. *African Economic Outlook 2023*. AfDB, 2023.5  
(<https://www.afdb.org/en/documents/african-economic-outlook-2023>)